

합평,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 수상

우수설치 분야 ... 최우수상 · 장려상 영예

합평군은 전남도 주관 2022년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 우수설치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표준형과 달리 자유롭게 디자인해 제작·설치가 가능한 건물번호판을 말한다. 도로명주소 홍보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우수설치와 디자인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합평군은 우수설치 분야에 참가해 '장년길 40'과 '장군로 926-12'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합평의 건물번호판은 건물의 용도와 번호판이 조화롭게 제작돼 2차 도 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장정진 합평군 민원봉사실장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특색 있고 아름다운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합평=김정섭 기자

장성, 디지털트윈국토 사업 완성... 스마트 성장도시 도약

최종보고회 열어 행정활용모델 기술 시연... "효율성 향상 기대" 호평

장성군이 디지털트윈국토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4층 아카데미 홀에서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디지털트윈국토는 위치를 나타내는 공간정보를 활용해 컴퓨터 가상 공간에 실물과 동일한 지형지물을 만들고 다양한 모의실험을 펼치는 기술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포함 1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장성군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장성군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은 행정업무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행정활용모델 개발'과 '3차원 기반 데이터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행정활용모델 기술 시연에 이어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시연은 사업 시행사인 엘티메트릭(주)가 맡았다.

장성군이 개발한 행정활용모델은 ▲건축물 색채디자인 시스템 ▲정원 조성 시뮬레이션 시스템 ▲주차안내 서비스 ▲슬레이트 교체 지원 서비스 ▲현장 조사·관리 시스템 5개 분야다.

건축물 색채디자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제 장성군과 동일하게 구현된 가상공간에서 건물에 다양한 색을 입혀 도시경관을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 정원조성 시뮬레이션 시스템 역시 가상공간에 여러 가지 정원을 조성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적합한 모델을 찾는 데 활용한다. 주차안내 서비스는 내비게이션 티맵(T-Map)과 연계해 장성지역 내 주차 가능한 곳을 알려준다.

슬레이트 교체 지원 서비스는 지역에 남아있는 슬레이트 소재 건물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가상공간에 표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 조사·관리 시스템은 가상공간에 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 두었다가 추후 시설물의 보수, 정비 시기와 안전도를 확인할 때 활용한다.

시스템 시연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호평했다. 장성군은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현된 우리군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된다면,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영광 '청소년 문화축제' 성황리 개최

10대들의 축제 '미리 즐기는 크리스마스 파티'

영광군은 지난 3일, 영광군 청소년 문화센터 광장에서 제10회 영광군 청소년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좋아! 미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슬로건으로 30명의 청소년 기획단이 기획하고 11명의 공연팀과 19개 체험 및 먹거리 부스를 직접 운영하였으며, 주최인 영광군과 주관인 '청소년 자립터 오늘'에서는 간접적 지원을 통해 10대 감성을 최대한 끌어낸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축제였다.

코로나19로 3년만의 대면 축제였으며, 이태원 참사 등으로 행사가 연

기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구들이 함께 한 행사로 3시간 내내 흥이 넘치는 무대로 기억됐으며, 산타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과 디제이 파티에서는 최대 데시벨의 합성과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많은 청소년 및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종민 기자

담양 '군민생활체육센터' 조성 청사진 마련

수영장·헬스장·종합운동장·공도장·체육회관 등 조성

담양군이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담양읍만성리 460번지 일원에 151,386㎡(약 45,800평) 규모의 담양군민생활체육센터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조성된 담양군민생활체육센터

터에서는 담빛수영장과 담빛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기에 종합운동장,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체육회관(반다비체육관), 공도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담양군은 2023년까지

토지매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신청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군민생활체육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병노 군수는 "담양군민생활체육센터 조성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담양군이 스포츠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재 기자

나주천연염색재단

'도자와 섬유의 만남' 전

(재)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오는 10일까지 한국천연염색박물관(나주시 다시면 소재)에서 '도자와 섬유의 만남' 전시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동심(童心)을 주제로 강서록 작가의 '도자 작품'과 배수진 작가의 '섬유인형' 개인전을 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강서록 작가는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도자의 매끄럽고 차가운 질감이 아닌 투박하고 때 묻지 않으면서도 해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다보는 아이들의 동심을 투영한 작품을 선보인다.

'어린왕자와 사막여우',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빨간 머리 앤' 등 동화·문학작품 속 아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게 하는 순수한 모습과 따뜻함을 엿볼 수 있다.

배수진 작가의 섬유인형 작품은 작가가 여러 직 좋아했던 '해와 달님', '숲속 이야기', '엘리스와 모자장수' 등 동화 속 주인공들을 떠올리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다.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이자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배 작가의 마음이 담겼다.

인경렬 한국천연염색박물관장은 "연말을 맞아 강서록, 배수진 작가의 작품을 통해 동심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화순 "생활 속 물 절약 함께 해주세요"

능주전통시장서 전 군민 물 절약운동 캠페인

가뭄 장기화로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이 물 절약운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으로 호소하고 나섰다.

화순군은 5일 능주전통시장 일원에서 생활 속 물 절약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화순군청 재난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지역자율방재단 등 60여 명이 참여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물 절약 홍보 활동을 펼쳤다.

화순군은 이날 캠페인을 통해 ▲수도꼭지 수압 낮추기 ▲샤워시간

줄이기 ▲모아서 빨래하기 ▲양치컵 사용하기 ▲변기 수조에 물병 넣기 ▲설거지용 사용하기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현재 화순군의 상수원인 동복댐과 주암댐 저수율이 각각 30% 수준으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내년 3월이 되 고갈이 예상되고 제한 급수 등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화순군은 가뭄해소 때까지 '가뭄대책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가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생활 속 물 절약운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화순=주용현 기자

장흥, 민선8기 공약 실천 "군민이 직접 챙긴다"

공약 실천계획 점검 주민배심원단 운영



장흥군 민선8기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한다.

군은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지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배심원 제도는 공약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군민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행정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군민의 지역에 대한 이해

와 군정운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앞서 장흥군은 지난 11월, 공약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하여 만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ARS를 통한 무작위 설문을 거쳐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하여 주민배심원 31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5일 오후 장흥통합

의학컨설팅센터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주민배심원 위촉·매니페스토 역량강화 교육·활동 및 역할 교육·분임 토의 등의 시간을 가졌다.

주민배심원단은 앞으로 12월 12일 2차회의, 12월 19일 3차 최종회의를 통해 민선8기 장흥군의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최종 권고안을 장흥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군은 권고안에 대해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초, 군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 참석한 주민배심원들은 "군민이 직접 군수의 공약에 대해 토론하고 점검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군민들을 대표해서 참여한 만큼 군민들의 생각과 의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자연과 역사를 품은 시간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



세랑지의 봄



연둔리숲정자의 여름



화순적벽의 가을



구봉암의 겨울